

기후 환경적 측면에서 본 제주 민간신앙*

윤용택**

국문 요약

제주섬은 온대와 아열대의 전이지대에 있는 화산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바람이 강하고, 비가 많으며, 가뭄이 심한 삼재(三災)의 섬이라 불릴 만큼 재해가 많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던 해안지대에는 일 년 내내 미생물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防疫)이 미비하던 시절엔 질병위험이 상존했다. 옛 제주인들은 신 또는 영이 질병과 죽음을 초래하고 건강과 풍요를 가져다준다고 믿고 제례의식을 통해 기복과 제액을 염원했다. 1960년 경 제주섬에는 300여 개 신당(神堂)과 400여명 심방(巫覡)이 있었다. 최근 신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섬에는 350개소가 정상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제주섬에는 예전부터 무속신앙이 강했고 지금까지도 비교적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주인들은 신들의 내력담인 본풀이[巫歌]에 근거하여 금기(taboo)를 통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질병에 대해서 경계하고, 세시의례를 통해 정기적으로 조신하면서 예방하려 하였고, 그래도

* 이 논문은 제주학회 제41차 전국학술대회(2014. 11. 21, 제주대학교 인문대)에서 발표된 “제주섬 기후환경이 민간신앙에 미친 영향”과 한국과학사학회 2015년 봄 학술대회(4. 23~26, 제주대학교 서귀포연수원)에서 발표된 “기후 환경적 측면에서 본 제주 민간신앙”을 보완한 것이다.

** 제주대 철학과 교수

닥쳐온 재해와 질병들에 대해서는 무속의례를 통해 치유하려 하였다. 제주 섬의 민간신앙이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연환경이 열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제주섬, 민간신앙, 기후환경, 자연재해, 질병, 무속

I. 머리말

인간은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 메타적 사유(meta-thinking)를 하기 때문에 추상적, 형이상학적, 초월적 사유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인간은 현존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당위(當爲)를 추구하고, 구체적인 것 속에서 보편적인 것을 찾으려 하며, 보이는 현상에 머물지 않고 그것의 근원을 찾으며, 죽음 이후의 삶을 걱정하고, 무한과 영원을 지향한다. 신화적 사고는 현실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데서 시작한다. 과학이 세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진 못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시대에도 여전히 신화는 필요하다. 신화는 세계가 창조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세계[現世]뿐만 아니라 저 세계[前世와 來世]까지 이야기하고, 생사(生死)와 오욕칠정(五慾七情)의 문제까지도 묘사하고 설명한다. 우리는 신화를 통해 여러 가지 현실적, 이론적 제약을 넘어서 맘껏 상상의 나래를 펴므로써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되찾게 된다. 우리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신화로 설명하려 하고,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신화적 방법으로 치유하려 한다.

근대 이전 사회에서는 자연물이나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사까

지도 신령스런 존재가 좌지우지한다고 보았다. 하늘, 땅, 바다, 인간 등도 신이 만들었고, 동식물뿐만 아니라 바위나 동굴에도 신령이 깃들어 있으며, 비, 바람, 가뭄, 지진, 화산, 해일 등의 자연현상과 생육(生育), 질병, 죽음까지도 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은 특정 지역의 고유한 문화라기보다는 보편적 인류문화의 한 모습이다.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없던 전근대인은 인간뿐만 아니라 개체적 생명체들, 물, 바람, 흙, 바위 등과 같은 무기물, 그리고 대지, 산, 바다, 강 등과 같은 집합체에게 영(靈)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다. 자연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주지만 때로는 건강과 목숨을 앗아가기 하기 때문에 순응의 대상이자 극복의 대상이고 한편으론 경외(敬畏)의 대상이다.

제주섬은 온대와 아열대의 전이지대에 있는 화산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바람이 강하고, 비가 많으며, 가뭄이 심한 삼재(三災: 風害, 水害, 旱害)의 섬이라 불릴 만큼 재해가 많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던 해안지대에는 일 년 내내 미생물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역(防疫)이 미비하던 시절엔 질병위험이 상존했는데, 대부분 민간신앙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는 “제주에는 옛날부터 음사(淫祀)를 숭상하여 산의 숲, 하천과 못, 언덕, 무덤, 물가 등의 나무나 돌에 신사(神祀)를 만드는 풍속이 있다.”는 기록에서도 확인되며, 그러한 기록은 조선 중기(1530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이후로 제주에 부임했던 관리나 유배인들의 여러 제주풍토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¹⁾

옛 제주인들도 여느 전근대인들처럼 신(神) 또는 영(靈)이 질병과

1) 고찬화 편저, 『제주의 전설과 민요』, 디딤돌, 2004, 27쪽, 36쪽, 40쪽, 51-54쪽.

죽음을 초래하고 건강과 풍요를 가져다준다고 믿고 제례의식을 통해 기복(祈福)과 제액(除厄)을 염원했다. 진성기에 따르면, 1960년경에 제주섬에는 300여 개 신당(神堂), 400여명 심방[巫覡], 500여 편 본풀이[巫歌], 1만 8천신이 남아 있었다.²⁾ 최근 제주섬(추자도 제외) 신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섬에는 449개 신당이 있으며, 그 가운데 350개소가 정상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³⁾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민간신앙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무속을 ‘미신’(46%), ‘전통문화’(29%), ‘전통신앙’(23%) 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는 제주섬에는 예전부터 무속신앙이 강했고 지금까지도 비교적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주섬이 ‘신들의 고향’이라 불릴 만큼 신과 신화와 무속의례들이 많은 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해와 질병은 인간의 생사와 존망이 걸린 문제였기에 옛 제주인들은 신들의 내력담인 본풀이[巫歌]나 역(易)과 음양오행(陰陽五行) 사상에 바탕을 둔 도참서(圖讖書)에서 재해와 질병의 근거를 찾았고, 그것을 토대로 초복(招福)과 제액(除厄)을 위한 의례를 행했으며, 길(吉)한 날과 방위를 택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하지만 과학적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태풍, 홍수, 가뭄, 해일 등의 재해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연현상이고, 소화기질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의 질병이 미생물 감염에 의한 것이라 알게 되었다. 그

-
- 2) 진성기, 『복을 비는 사람들』, 디딤돌, 2008, 21쪽, 24쪽, 58쪽; 하순애는 2007-2011년까지 제주도내 신당을 파악한 결과 346개 신당을 확인한 바 있다. 하순애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 3) 『제주신당조사』(제주시 권, 서귀포시권), 제주도전통문화연구소 편, 2008~2009 참조
- 4) 윤용택, 「제주 생활문화 의식과 정체성」 『제주생활문화100년』, 제주문화원, 2014 참조

런데도 오늘날까지 제주섬에 무속(巫俗)의 잔영이 짙게 남아있는 것은 그만큼 무속이 오랫동안 제주인의 삶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제주 민간신앙도 인류문화의 보편성과 제주섬의 기후환경의 특수성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제주 민간신앙 속에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유교, 불교, 도교, 무속 등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신앙과 기후환경의 밀접한 상관관계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주섬과 상황이 비슷한 다른 지역과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제주섬의 민간신앙과 기후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제주섬의 민간신앙

1. 제주섬의 신과 민간의례

제주섬에서는 통상적으로 1만8천신이 있다지만 실제로 그 숫자를 헤아릴 수는 없다. 제주섬에서 숭배되는 신은 크게 일반신, 마을신, 집안신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 일반신이란 일월(日月), 산해(山海), 생육(生育), 질병, 죽음, 농경, 어로, 빈부 등 자연현상과 인간생활의 일반적 사상(事象)을 좌우하는 신이다. 그리고 마을신은 한 마을 안의 토지 및 마을주민의 제반 생활을 지배하는 신이고, 집안신은 한 가구(家口)나 한 씨족의 제반 생활을 수호하는 신이다. 이처럼 신들은 기능과 역할이 나뉘져 있다.

제주섬의 당신(堂神)들은 대체로 한라산출생계신은 수렵신, 풍우

신적 성격을 띠고, 송당계신들은 수렵신, 농신적 성격을 띠며, 외래신은 영웅신적 성격을 띠고, 일뤼당계신은 돼지숭배 잔재, 여드렛당계신은 뱀숭배 잔재를 나타낸다. 한편 제주인도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죽게 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고 믿었고, 사후 3년이 지나면 영신(靈神), 3년 미만은 놀흔(魂魄)이라 하는데, 그것들은 원칙적으로 선한 것으로 생사와 같은 인격으로 보았다. 한편 비명에 죽거나 원한을 품은 채 죽어서 저승과 이승 사이를 떠돌다가 인간에게 빙의(憑依)하여 그 원한을 푸는 사령(死靈)들도 있다.⁵⁾ 이 외에도 비상한 힘과 재주를 가져 사람을 홀리고 짓궂은 장난이나 험상한 짓을 많이 하는 잡귀인 도깨비(도깨비)와 질병이나 재해를 준다는 새[邪]와 매[魔]가 있다.

<표1> 제주섬의 신들⁶⁾

인 격	신	일 반 신	옥황상제(하늘차지神), 지보스천[地府四千]대왕(땅차지神), 산신대왕·산신백관(산차지神), 대서[大使]용궁[용왕](바다차지神), 영등할망(바람神), 서산대사·육관대사(절차지神) 삼승할망·맹진국할망[產育神], 흥진국대별상서신국마누라(痘神), 날궁전·돌궁전(일월신), 조공(巫祖神)과 그 권속, 이궁[꽃감관](서천꽃말神)과 그 권속, 삼공(전생[前生]神)과 그 권속, 시왕[十王]과 하위신(진광대왕, 초강대왕, 송제대왕, 오관대왕, 염라대왕, 변성대왕, 태산대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전륜대왕, 지장대왕, 생불대왕, 좌두대왕, 우두대왕), 차사(十王使者: 일직사자, 월직사자, 어금부도사, 금부도사, 이원차사, 강림차사, 용왕국차사, 용궁차사, 객사차사, 비명차사, 결정차사, 염사차사, 화덕차사, 맹두맹감삼차사, 구불법차사), 삼맹감(冥府使者), 세경(농신: 조청
--------	---	-------------	---

- 5) 현용준 외, 『한국민속종합종합보고서』(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95-106쪽, 현용준, 「濟州島 巫神의 形成」, 『탐라문화』 창간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2, 1쪽, 현용준, 『제주도 마을신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14-20쪽, 문무병, 「제주도 도깨비당 연구」 『탐라문화』 제10호, 1990, 210-213쪽 참조.
- 6) 현용준 외, 『한국민속종합종합보고서』(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95-106 쪽 참조.

	마을신		비[중세경], 문도령[상세경]·테우리(정수남이[하세경]), 성주(가옥신), 문전(문), 칠성(富:안칠성[고평], 밧칠성[뒤뜰]), 조왕(부엌), 오방토신(청대장군 동], 백대장군[서], 적대장군[남], 흑대장군[북], 황대장군[중앙]), 주목지신·정살지신(집안출입로神), 올담지신·내담지신(올타리신), 놀굽지신(날가리신), 칠성[복두칠원성군](壽福), 구삼싱(兒魂), 칩도부인(변소) 등
		마	포신(醺神): 마을주민의 생명, 재산, 토지, 생업 보호하는 신 (洞社之神, 里社之神, 守土之神, 街衢之神, 土地之神 등)
		儒	제석(帝釋): 농업 관장, 보호하는 신
		式	해신(海神): 용왕 및 그 하위 잡신, 어망업 하다 죽은 고혼, 도깨비신
	당신 ⁷⁾	본향	본향당신: 마을 토지 및 지역민 생활전반을 수호하는 신
		일뤼	일뤼당신: 육아, 눈병, 피부병, 복통 등의 치료신 여드렛당신: 부(富)를 갖다주는 뱀신 해신(海神): 어촌마을 어업신(개당할망, 용녀부인, 용왕 등) 농신(農神): 중산간마을 농업신(세경) 산신(山神): 산간마을 수렵신(산신대왕, 산신백관)
사령	집안신	군왕[구농, 군농, 구농일월]: 공통 근원의 신 조상[조상일월]: 공통 근원으로부터 갈라진 신	
	영혼	영혼(영신) : 죽은 지 3년 지난 사령(死靈) 혼백(늘혼) : 죽은 지 3년 미만 사령	
	잡혼 / 잡귀	군병: 삼별초(김통정)란, 임진왜란, 방성칠란, 이재수란, 이차세계대전, 43사건, 한국전쟁 등 전란 때 비명에 죽은 사령 군졸: 산, 물, 배 등을 관장하는 신의 뒤를 따르는 잡귀 척귀: 사랑(소원)을 못 이루거나 원한을 풀지 못해 죽은 원혼	
	도깨비	도깨비(비상한 힘과 재주를 가진 잡귀)	
비인격	邪魔	질병이나 재해를 준다는 새[邪]와 매[魔]	

- 7) 하순에는 조노기한집(1)~문국성상오브름웃도(264)에 이르기까지 총 264종의 당신(堂神)을 확인한 바 있다. 264종의 당신(堂神) 가운데 본향당신(한집 류) 31종, 관직 및 지위와 관련 신 25종, 바다신 31종, 불교적 신 17종, 단순한 할망하르방 신 60종, 한라산신 15종, 일뤼당신 35종, 여드렛당신 8종, 기타 42종 등이다. 하순에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현용준은 제주섬 신들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제주섬 신들은 옥황상제를 최상위로 하고 눌굽지신을 최하위로 하는 위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위신이 하위신에게 직능상이나 행위 면에서 지시나 제지나 인술을 하지 못한다. 각 신은 자기가 맡은 바 사물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리를 갖는다. 한 신이 다른 신의 직능에 대하여 간섭이나 억압을 하지 않고 독자성을 갖는다.

② 선신(善神)이라 해서 무한대 선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신을 푸대접하거나 잘 숭앙하지 않거나 금기를 어기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노여워서 그에 상응하는 질병이나 재해를 인간에게 내려 괴롭힌다. 그래서 그 인간이 사죄하고 치제(致祭)할 때 그 노여움을 풀어 질병이나 재해를 거둔다. 그러나 악신(惡神)인 잡귀(雜鬼), 새[邪], 매[魔] 등은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악신들은 질병을 주거나 재해를 줄 뿐 복을 갖다 주지는 않는다. 심방은 이 악귀를 대접하고 위로하여 물러나게 하지만 그저 물러나기를 바라뿐 그것들이 복을 내려주는 법은 없다. 하지만 선신은 질병재해를 주기도 하지만 이를 거둬들인 후 다시 복을 내려주는 점에서 다르다.⁸⁾

그리고 도깨비는 신출귀몰하고 변화무쌍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만들어내며, 으스스한 폐가, 동굴, 숲, 고목 등 음산한 곳, 특히 비가 오는 밤에 잘 나타나는 잡귀로 그와 화해하면 부와 풍요를 가져다주지만 불화하게 되면 질병과 파괴를 통해 망하게 한다. 통상적으로 밤에 묘지나 습기 찬 곳 등에서 인(隣) 따위의 작용으로 나오는 푸른빛을 도깨비불이라 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온난다습한 제주에서는 그러한 도깨비불과 도깨비(도채비)를 연결시켜 생각할 여지가 더 많았을 것이다. 도깨비는 사람처럼 건망증과 소유욕이 있으며 곤경에 빠지면 도와주기도 하고 배신을

107-112쪽.

8) 현용준 외, 「무속」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107쪽 참조.

하면 보복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富)나 재물 신의 성격을 가진다. 제주섬의 도깨비신은 일반신, 당신(堂神), 조상신(祖上神)의 세 부분에 걸쳐 있으며, 부신(富神) 풍어신(豐漁神), 씨족수호신(氏族守護神), 야장신(冶匠神), 역신(疫神) 등 성격을 지닌다.⁹⁾

제주섬의 신은 우주법칙의 지배하에 인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환경적 조건하에 인간적 성격을 지니고 생활해가는 존재이긴 하지만 제주인들은 신들이 인간에게 좋은 곳든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길흉화복이 있기에, 그들에게 초복(招福)과 제액(除厄)을 염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하순애는 제주도내 336개 264종 당신(堂神)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 당신은 자연신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할망 하르방 계통의 인신(人神)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남신보다 여신이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제주도 민간신앙은 한반도 전체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⁰⁾

현용준은 제주 마을신앙을 마을주민 전체(일부 또는 대부분)가 그들 전체(일부 또는 대부분)의 복리를 위해 공동으로 의례하는 제의(祭儀)로 정의하면서 마을제당을 유식제단(儒式祭壇)과 무식제당(巫式祭堂)으로 나눈 바 있다.

9) 문무병, 「제주도 도깨비당 연구」 『탐라문화』 제10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0, 210-213쪽.

10) 하순애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112-114쪽.

<표2> 제주섬 마을신앙의 제단¹¹⁾

	유식(儒式) 제단				무식(巫式) 신당				
구분	포제단	제석제단	해신제단	기타	본향당	해신당	일렛당	여드렛당	도채비당
신격 神格	마을수호신	농업수호신	어업수호신	목축신 등	마을수호신	어업수호신	육아질병	뱀신 [富]	부·재앙
신체 神體	위패(位牌), 지방(紙榜) 등				신목(神木), 신석[神石], 신혈(神穴), 신상(神像) 신물(神物) 돌궤[石櫃], 동굴, 돌담, 위패(位牌), 제단, 무덤 등				
형태	제단수 1개/2개/3개이상				신목형/신석형/신혈형/신상형/당집(堂宇)형/석원(石垣)형/돌궤[石櫃]형/위패형/제단형/복합형, 기타형				
	모양 장방형, 반월형, 혼합형								

제주인은 인간사의 길흉화복은 신의 뜻에 따라 전개된다고 보았고,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신은 화(禍)도 주고 복(福)도 준다고 믿었다. 그리고 제주섬 신들의 역할과 기능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특정 신을 위한 무속의례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무속의례가 행해져야 했다. 민간신앙의 의례는 사안에 따라 집안이나 가족끼리 개별적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마을회, 어촌계, 해녀회 등에서 주관하여 집단적으로 행해지기도 했다. 그리고 의례는 세시(歲時)와 절기(節氣)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마다 임시적으로 행해졌다. 마을 수호신을 모시는 포제나 마을

11) 현용준, 『제주도 마을신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45쪽, 문무병, 「제주도 도채비당 연구」 『탐라문화』 제10호, 1990, 215쪽, 『제주신당조사』(제주시권, 서귀포시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전통문화연구소 편, 2008~2009 참조

제, 어업을 관장하는 해신을 모시는 용왕제, 자연재해와 관련된 기우제나 기청제, 돌림병 퇴치굿이나 메구굿 등은 마을회나 어촌계, 해녀회 등이 주관하여 행해졌다. 하지만 그 이외의 대부분의 초복(招福)과 제액(除厄)을 위한 의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행해졌다.

<표3> 길흉화복에 따른 민간신앙 의례¹²⁾

기 원 내 용	의 례 집 전	개별(집안, 가족)		집단(마을, 계원)
초 복	유식 儒式			포제(먹을제):정월丁日 또는 亥日 제석제(농사풍년): 백중 전후 백중코스(우마번식) : 백중 그물코스(어망풍등)
	심방	정 기	문전제, 칠갈이, 돛제, 땡감코스,요왕제(용왕제) 등	신과세제(정월), 영등제(2월), 마불림제(7월), 시만국대제(10월), 용왕제
		임 시	불도맞이,아기비님,성주풀이, 칠성제, 산신놀이, 연신맞이, 신굿 등	
	보살/ 점쟁 이	재수(사업, 학업, 건강, 혼인), 사주,각종제일 택일, 불도맞이, 성주풀이 칠성제, 칠갈이, 문전제, 토신제 등		
	정사/ 지관	이사방위 결정, 각종제일 택일, 양택 (집터)		설촌, 위인생가(풍수) 각종 마을 제일택일
	기타	신구간: 대한후5일~임춘전3일 입춘(새철드는날), 동짓날 일랏당(育兒):매월초7,17,27일 여드랏당(富):매월초8,18, 28일		

12) 고영자, 「민간신앙」 『제주생활문화사』, 제주문화원, 2014; 이은주, 「제주도 무의에 나타난 질병개념」 『논문집』 제13집,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1989, 69-70쪽; 현용준, 『제주도마을신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14-20쪽 참조.

제 액	심방	넉들임, 푸다시, 액막이, 구삼승 넙, 두린굿(정신병치료), 불찍굿 (화재후액막이), 영감놀이(도채 비 퇴치), 귀양풀이, 시왕맞이, 칠성새납, 마누라배송(홍역, 천 연두치료), 새도림	마을돌림병퇴치굿(질병,화재예방) 메구굿, 4.3무혼굿, 해원상생굿 기우제, 기청제, 산신제(액막이)
	보살	넉들임, 푸다시, 액막이, 병굿 (정신병 및 불치병), 귀양풀이, 수명점	
	정시 / 지관	음택풍수(묘지)	음택풍수(마을묘지), 방사탑
	기타	제사 때 문전제	입춘굿(1999년 복원), 백조일손 제사

2. 무속신앙 속의 질병들

생육, 질병, 죽음은 인간이 풀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생물학이나 의료지식이 없던 시기에 그것들을 초자연적 힘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인류 공통적인 현상이다. 클레멘츠(F. E. Clements)는 사마니즘 질병을 잡귀 침입이나 신령이 들어와 생긴 병의현상(Spirit Intrusion), 사회적 규범인 터부를 어겼을 때 생긴 금기침해(Reach of Taboo), 넉(넉)나는 경우와 같은 영혼상실(Soul-loss),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이 침입하여 생긴 물침입(Object Intrusion), 저주로 생긴 병주술(Disease Sorcery) 등으로 나누고 있다.¹³⁾

신화적 사고에 젖은 옛 제주인도 어떤 초자연적인 신령, 즉 일반 신이나 조상의 영혼이나 잡귀 등이 생육, 질병, 죽음을 좌우한다고

13) 이은주, 「제주도 무의에 나타난 질병개념」 『논문집』 제13집,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1989, 64-65쪽 재인용.

믿었다. 그들은 제주섬 곳곳에 1만8천신이 편재(遍在)해 있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본풀이 속에 있다고 보고, 심방이 집전하는 무속 의례를 통해서 생육, 질병,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현용준은 제주섬 무속에 등장하는 질병을 크게 신격(神格)이 주는 질병과 영혼에 의한 질병으로 나누고, 전자를 다시 어린이 질병, 뱀신이 주는 질병, 당신(堂神)이 주는 질병, 도깨비신이 주는 질병 등으로 나눴다.¹⁴⁾

제주인들은 어린이의 생육(生育)은 삼승할망, 그리고 어린이 질병과 죽음까지도 구삼승할망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 믿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비념을 통해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간은 영혼이 육체에서 일부가 나가게 되면 녁(넋)나고, 영혼이 전부 나가게 되면 죽게 되며, 시체를 떠난 영혼이 생시에 어떤 원한이 있거나 횡액(橫厄)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저승엘 못 가서 중간에서 헤매는 사령(死靈), 이른바 ‘죽산이(죽었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 있는 이)’가 되고 그것들이 생시의 원한을 풀기 위해 형제나 친족에게 빙의(憑依)하여 질병이 된다고 믿었다.¹⁵⁾ 제주섬에서는 지금도 장례를 치르고나서 영혼은 좋은 곳으로 가도록 귀양풀이를 하는데, 이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이승과 저승,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 제주인의 영혼관에 기인한다.

제주인은 심리적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적 질병까지도 그 원인은 본질적으로 심적인 데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영혼 일부가 빠져 나가는 ‘넋남(넋남)’, 죽은 이의 영혼이나 잡귀가 빙의되어 생기는 병뿐만 아니라, 어린이 질병, 천연두, 홍역, 피부병, 설사병, 감기 등도 구삼승할망, 마누라, 칠성, 일뤼당신, 여드렛당신, 백주또 등 제

14) 현용준, 「濟州島巫俗의 疾病觀」 『제주도』 제21호, 제주도, 1965 참조

15) 현용준, 「濟州島巫俗의 疾病觀」 『제주도』 제21호, 제주도, 1965 참조

반 신들의 노여움, 장난으로 생기는 것이기에 곳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표4> 생육 및 질병 관련 신과 제주 무속의례¹⁶⁾

신	기능	의례
삼승할망	기자(祈子), 해산(解産), 육아	산후3일, 7일, 백일, 돌 할망床, 아기비넴, 불도맞이
구삼승할망	어린이 병역(病疫)	구삼승내기
(큰, 작은)마누라	천연두(큰-), 홍역(작은-)	마누라배송
(안, 밧)칠성	뱀피부	칠성새남
일췌당신	눈병, 설사, 옴, 허물 등	당굿
여드렛당신	처녀 급질(急疾)	
백주또	잔칫집 설사병	돛제, 결혼전 의례
도깨비(도채비)	빙의	영감놀이
전상차지신	일탈행동	전상놀이(삼공맞이)
영혼	넉(넛)남	넉(넛)들이
사령(죽산이)	정신병, 빙의	두린굿, 곱가름
잡귀		푸다시(벌풀이, 신평이, 끌레기치송)
새[邪], 매[魔]		새도림
새[邪]	15세 이상 소년 중병	물막개방쉬(막잡은 방쉬)
	액운	대악막이(방쉬굿)
명청이 쾇것	감기	둥것날 팔죽

하지만 그러한 제주인의 질병관도 크게 본다면 전근대적 사회의 보편적 현상 중의 한 사례이다. 이은주는 글레멘츠(F. E. Clements)의 사마니즘 질병 분류에 따라 제주무속의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¹⁷⁾

16) 이은주, 위의 논문; 현용준, 「濟州島巫俗의 疾病觀」 『제주도』 제21호, 제주도, 1965; 진성기, 『복을 비는 사람들』, 디딤돌, 2008 참조

<표5> 샤마니즘 질병 분류에 따른 제주무속의례

분류	특징	무속의례
빙의현상 (Spirit Intrusion)	잡귀의 침입이나 신령이 들어와 생긴 질병	영감놀이, 전상놀이(삼공맞이), 푸다시(푸타거리), 두린굿, 새도림, 구삼승냄, 아기비נם, 불도맞이, 마누라배송, 당신(堂神)의례
금기침해 (Reach of Taboo)	사회적 규범인 터부를 어겼을 때 생긴 질병	칠성세남
영혼상실 (Soul-loss)	영혼의 상실로 생긴 질병	넉들임, 액막이
물침입 (Object Intrusion)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이 침입하여 생긴 질병	아기가 경기할 때 피뽀기
병주술 (Disease Sorcery)	저주나 마술로 생긴 질병	쇠고기방쉬, 물막개방쉬

샤마니즘과 제주섬의 무속의례에 따른 질병 분류는 제주섬의 민간신앙도 샤마니즘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문화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3. 살아 있는 제주 민간신앙

제주 민간신앙은 과학기술문명시대에도 박제화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 최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민간신앙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¹⁷⁾ 제주도민은 제주무속을 ‘미신’(46%), ‘전통문화’(29%), ‘전통신앙’(23%) 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는 무속을 미신으로 보는 이가 많지만, 과학기술시대인 요즘에

17) 이은주, 「제주도 무의에 나타난 질병개념」 『논문집』 제1집,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1989, 73-77쪽 재인용.

18) 윤용택, 「제주 생활문화 의식과 정체성」 『제주생활문화100년』, 제주문화원, 2014년 참조.

도 제주의 전통문화나 전통신앙으로 인식하는 이도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속’을 ‘미신’으로 인식하는 도민은 서귀포시 동지역(61%)과 읍면지역(62%), 중졸(52%), 기독교인(60%), 회사원(56%)인 도민들에서 많았고, ‘전통문화’로 인식하는 도민은 제주시 지역(35%), 대재(36%), 대졸이상(37%), 종교없음(34%) 도민들에서 많았다. 이는 제주 칠머리당굿이 1980년에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제로 지정되고,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속’을 ‘전통신앙’으로 인식하는 도민은 제주시 읍면지역(33%), 서귀포시 동지역(30%), 초졸(47%), 불교인(37%) 도민들에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민에게 ‘일이 잘 안 풀릴 때 굿을 해야 하는지’를 묻은 결과 제주도민의 8%만이 동의하고, 대부분(87%)의 도민은 굿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 본인 / (남자의 경우) 아내(또는 어머니)가 당(堂)에 다니는지를 묻은 결과, 도민의 8%만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69% 도민은 ‘당에 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 오늘날 신앙으로서 신당을 찾는 도민이 많이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제주도민의 40%는 사고가 나서 정신적 쇼크를 받아 넋(넋)났을 경우에, 심방(무당)을 불러 넋(넋)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도민의 25%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망자의 영혼을 보내는 이른바 귀양풀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명천지 시대인데도 제주섬에 여전히 무속신앙이 어느 정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혼하거나 이사할 때 반드시 택일해야 하는지’ 묻은 결과, 도민의 43%가 ‘동의’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동지역(50%), 60대이상(65%), 초졸(87%), 불교인(64%), 농어업 종사(60%), 무직계층(68%)인

도민들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점술가를 찾아가는지’ 묻은 결과, 도민의 16%가 ‘찾아간다’고 응답했고, 서귀포시 동지역(18%)과 읍면지역(19%), 여성(23%), 60대이상(30%), 초졸(37%), 불교인(32%), 제주출생 제주거주(22%) 도민들에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까지 마을구성원들의 안녕을 기원하던 마을제(포제, 리사제, 동사제, 당굿)는 마을공동체의 단합을 꾀하는 역할을 하였다. 새마을운동 이후 한때 사라졌던 마을제가 최근에 다시 부활되는 조짐도 보인다. 마을제에 대한 도민의 생각을 묻은 결과, ‘우리 마을에서 마을제를 지내는 것이 좋다’(37%), ‘잘 모르겠다’(35%), ‘아니다’(28%)로 나타났다. ‘마을제를 지내는 것이 좋다’는 도민은 제주시 읍면지역 (59%), 50대(47%)와 60대이상(55%), 초졸(57%)과 중졸(64%), 불교인(54%), 농어업 종사(55%), 무직계층(64%), 제주출생 제주거주(47%)와 제주출생 육지거주 10년이상(46%), 성장지역이 제주시 읍면(45%), 서귀포시 읍면(50%)인 도민들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제 참여 여부를 물을 결과, 도민의 15%만이 마을에서 마을제를 지내는 경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도민은 85%이며, 이 가운데는 ‘마을제 자체를 모르는 경우’(14%)도 포함되어 있다. ‘마을제에 참여한다’는 도민은 제주시 읍면지역(31%), 서귀포시 읍면지역(22%), 50대(26%)와 60대 이상(22%), 중졸(36%), 농어업 종사(35%) 도민들에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마을에 남아 있는 신당이나 당집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보존 해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도민은 24%, ‘보통’이라는 판단을 유보한 도민은 50%, 부정적으로 보는 도민은 26%로 조사되었다. 당집을 도에서 지원·보존해 주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

로 보는 도민은 제주시 읍면지역 (37%), 30대(30%)와 60대이상(38%), 초졸(47%)과 중졸(32%)인 도민들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운동 때 미신타파 운동으로 신당을 파괴하고 굿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당시에 당과 굿을 없앤 것은 잘 한 일인가’를 물은 결과, 도민의 45%가 동의하였고, 20%는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잘 모르겠다’고 유보적인 의견을 보이는 도민은 35%였다. ‘당과 굿을 없앤 것은 잘한 일’로 보는 도민은 제주시 동지역(50%)과 서귀포시 동지역(52%), 40대(52%)와 50대(51%), 천주교인(53%)과 기독교인(60%) 등의 도민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칠머리당굿은 어부와 해녀들의 생업과 마을주민의 평안을 위한 당굿으로, 2009년 9월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많은 도민이 제주칠머리당굿이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61%)고 하였고, ‘잘 모르겠다’(25%),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14%)고 응답했다. 제주칠머리당굿이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도민은 제주시 동지역(62%)과 읍면지역(63%), 남성(67%), 30대(70%), 불교인(76%)인 도민들에서 비교적 많았다.

그리고 제주에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신구간(대환 후 5일 입춘 전 3일, 즉 1월 25일~2월 1일)’에 이사를 하거나 임대 계약을 하는 풍습이 있다. 그러한 신구간 풍속이 바람직한지를 물은 결과 27%가 ‘그렇다’고 동의하였고, 61%가 반대하였다. 1980년대 후반 도민들에게 신구간에만 이사를 하거나 집을 고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느냐 설문조사에서도 ‘그렇다’(28%)와 ‘그렇지 않다’(57%)로 나타난 바 있다. 신구간 풍속과 관련해서 3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점차 바뀌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금방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첨단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민간신앙은 여전히 제주인들의 삶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다. 민간신앙이 본래 열악한 자연 환경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오랫동안 지속된 결과하나의 문화현상으로 굳어져서 제주인의 삶과 정신을 지배하는 세계관과 사회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연현상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대부분의 질병을 의술의 힘으로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제주 민간신앙이 살아있는 이유는 과학의 변화에 비해 세계관의 변화가 늦게 진행되기 때문일 것이다. 본래 쿤(T. Kuhn)의 패러다임은 본래 “실험장치, 실험테크닉, 이론 적용 방법, 과학이론, 가정, 세계관, 가치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카프라(F. Capra)는 패러다임을 “특정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개념, 가치, 인식 그리고 실천으로 이뤄지는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¹⁹⁾ 특정한 과학이론이 변하면, 언젠가는 그에 상응하는 패러다임과 세계관도 변하지만,²⁰⁾ 한 시대를 지배하던 과학이론이 변했다 해서 곧바로 세계관이 변하지는 않는다. 과학이론 바뀌는 기간에 비해 세계관이 변하는 기간은 훨씬 더 길다. 이는 진화론이 나온 지 150년이 지났고, 상대성이론이 나온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것에 바탕을 둔 세계관이 아직도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자연현상이나 질병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곧바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제주 민간신앙을 일시에 단절시킬 수는 없는 것이

19) F. Capra, “The Concept of Paradigm and Paradigm Shift,” *Re-Vision*, vol. 9, no. 1, 1986, 3쪽; F. Capra, *The Web of Life* (New York: Anchor Books Doubleday, 1996), 6쪽에서 재인용.

20) T. S.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Revolutions as Changes of World View”, 111-135쪽 참조.

다.

뿐만 아니라 근대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과학기술문명이 자원고갈, 생태계파괴, 환경오염 등을 초래하고, 주체와 대상, 인간과 자연, 정신과 물질 등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성중심적인 근대적 세계관에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 정신과 물질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인간뿐만 아니라 개체적 생명체들, 물, 바람, 흙, 바위 등과 같은 무기물, 그리고 대지, 산, 바다, 강 등을 단순한 무기물의 집합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네오에니미즘(neo-animism)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 추세가 과학기술문명시대인 오늘날에도 제주섬의 민간 신앙이 미신으로 폐기되지 않고 전통문화와 전통신앙으로 살아남게 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III. 제주섬의 기후환경의 특성

1. 빈번한 자연재해

제주섬에 신과 신화와 무속의례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주섬의 기후는 크게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기단들, 즉 온난건조한 대륙성열대기단인 양쯔강기단(봄.가을), 고온다습한 해양성열대기단인 북태평양기단(여름), 한랭습윤한 해양성한대기단인 오호츠크해기단(장마철), 고온다습한 해양성적도기단(태풍), 한랭건조한 대륙성한대기단인 시베리아기단(겨울)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제주섬의 기상은 온대와 아열대 전이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가운데에 거의 2000미터에 달하는 한라산이 솟아 있는 화산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서 한반도와는 사뭇 다르다.

제주섬은 산악(한라산, 오름)과 해양 등 지형적 영향으로 기온, 바람, 강우량 등에서 동서남북 기상변화와 편차가 매우 심해서 자연 재해가 많았고, 예보능력이 뒤떨어졌던 예전에는 요즘보다 훨씬 심했다. 『조선왕조실록』, 『증보문헌비고』,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속음청사』, 『제주계록』, 『탐라기년』 등 사료에는 제주기상과 관련된 다수의 기록들이 존재하며, 주로 농업과 관련된 바람, 비, 가뭄 등의 특이기상과 관련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표6> 사료에 기록된 제주의 기상재해²¹⁾

재해 시기	바람	비	가뭄	대설/한파	황사	계
15세기	6	3	2	2		13
16세기	5	5	4		1	15
17세기	19	13	8	6	2	48
18세기	12	5	6		3	26
19세기	2	4	3	2		11
계	44	30	23	10	6	113

제주섬은 예로부터 삼다도(三多島), 삼재도(三災島)라 불렸다. 삼다[風多, 石多, 女多]와 삼재[風災, 水災, 旱災]의 첫 순서가 모두 ‘바람[風]’일 만큼 바람이 많다. 여름철 태풍과 겨울철 북서풍뿐만 아니라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하루에도 육지와 해양의 열

21) 김오진,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상재해와 관민의 대응양상」 『제주지리론』, 한국학술정보, 2010, 174쪽; 심재면, 「기후변화의 개념, 원인과 영향」, 2014년 기후해설사 과정 강의자료, 2014. 6. 17 참조

용량 차에 의한 해륙풍 순환 뚜렷하다. 연평균 풍속은 초속 3~6미터로 본토보다 1~2미터 강하며, 서부지역이 평균 풍속이 초속 6.9미터, 북부는 3.8미터, 동부와 남부지역은 3미터이고, 순간 최대풍속(고산)은 초속 60미터로 기록된 바 있다.

<표7>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의 연평균 빈도 (단위 개)²²⁾

월 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 계	연 평 균
1904 - 2005	.	.	.	.	2	20	89	119	78	8	.	.	316	3.1

강풍, 풍랑, 호후, 폭풍해일 등을 동반하는 태풍이 일 년에 3개 정도 영향을 미치며 주로 7월~9월에 내습한다. 제주섬은 태풍의 길목에 있어서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 태풍피해가 가장 심한 편이다. 그리고 태풍 못지않게 겨울의 북서계절풍이 많은 피해를 남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인은 음력 2월에는 바람신인 영등할망이 오는 영등달이라 하여 바닷사람들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영등굿을 하였다. 장주근은 제주 영등굿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2월을 영등달이라고 하는데, 150여년 전 홍석모(洪錫謨)에 의해 저술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서나, 500년 전 노사신(盧思愼)에 의해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도 대규모의 영등굿을 언급하여 “제주도의 풍속에는 이달(2월)에 배타는 것을 금기로 한다(濟州俗是月 禁乘

22) 김상봉, 「제주도 연안해역의 폭풍해일고 산정」,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30쪽 참조.

船)”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해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강하게 금기를 내리고 있는 해양기상학적 관심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주도 통계연보의 기상관계자료를 보면, 실제로 태풍이나 그에 따른 피해는 주로 8월에 많고 2월에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제주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2월 보름 되는 무렵 전후에는 대체로 소라, 전복, 떡조개, 고막 등 조개류의 속이 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과 영등굿의 ‘씨드림’ 같은 것이 근원적으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어떻게 제주도 영등굿은 제주도는 지리성·해양기상해녀사회가 그들의 생업과 끊임없이 함수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발생하여 전승되어 온 것으로 여겨진다. 영등신의 근원적 연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지겠지만, 지금은 이정도로 이해해 둘 수밖에 없을 듯하다.²³⁾

제주섬에서 태풍 피해가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태풍은 여름철에 내습하고, 워낙 강한 바람이라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기에 태풍의 조짐이 보일 때는 아예 바닷일을 안 한다. 따라서 바람으로 인한 불의의 조난사고는 여름보다 북서계절풍이 부는 겨울에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제주섬의 일년 평균 풍향의 분포는 북서~북풍 성향이 뚜렷하며, 특히 겨울철에 고산에서는 북풍이 40%, 성산포에서는 북서풍이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12월~익년 3월까지 북서풍이 심하게 불고 있다.²⁴⁾ 그러다보니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도 하절기보다는 기상특보 및 해양기상 급변이 심한 동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⁵⁾

23) 장주근, 「강인한 삶의 현장, 풍요로의 기원」 『제주도 영등굿』 (김수남 사진집), 열화당, 1992, 86쪽.

24)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 기후특성집』, 제주지방기상청, 2003 참조.

25) 안영화 외,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의 유형과 원인에 관한 연구」 『제주대 해양과환경연구논문집』 25호, 2001, 25쪽.

<표8> 제주섬의 월별 폭풍주의보 발표 횟수(1983-1992)²⁶⁾

월 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983	3	2	5	5		1	3	3	1	1	3	2
1984	2	6	2	1	1	2	1	1	1	1	1	3
1985	4	7	3	4	2	3	4	3	2	4	5	4
1986	6	6	4	1		2		1	1	3	2	7
1987	7	6	5	5	2	1	2	4	4	4	4	5
1988	4	4	5	4	1	3	2	1	3	2	3	4
1989	5	4	3	2	2	5	3	1	3	3	4	3
1990	8	3	3	4	4	3	1	2	3	2	3	4
1991	2	4	4	4	2	3	4	4	2	1	1	3
1992	3	2	3	6	1	2		3	1	3	4	4
평균	4.4	4.4	3.7	3.6	1.5	2.5	2.0	2.5	2.1	2.4	3.1	3.9

제주섬 땅에서는 일 년 중 2월초에 기온이 최저로 내려가고,²⁷⁾ 바다에서는 대체로 3월(음력 2월)을 전후하여 수온이 최저로 내려간다.²⁸⁾ 땅에서는 대한과 입춘 사이가 묵은 절기와 새 절기가 바뀌고, 바다에서는 한 달 쯤 뒤에 묵은 절기와 새 절기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제주인들은 바람의 신인 영등할망이 영등달(음력 2월) 초하룻날 귀덕으로 바람을 몰고 들어와서 땅과 바다에 씨를 뿌리고 보름날 우도로 빠져나간다 하며, 제주칠머리당에서는 해마다 영등달 초하룻날이 되면 제주를 찾아오는 영등신을 맞이하여 <영등환영제>를

26) 이 수치에는 파랑주의보도 포함되어 있다. 『제주기후요람(1961-1990)』, 제주 기상대, 1993, 1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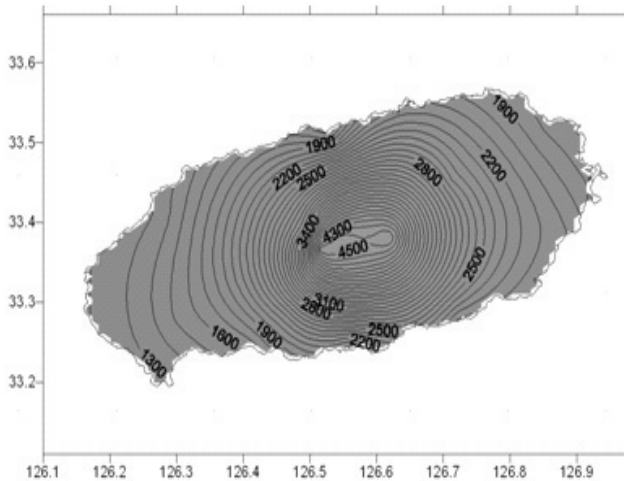
27) 1971~2000년의 제주의 일별 기온분포를 보면 2월 2일이 가장 낮은 4.3℃이고, 8월 1일이 가장 높은 27.6℃를 보인다.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 기후특성집』, 제주지방기상청, 2013, 78쪽.

28) 해수의 온도는 해류, 태양복사에너지, 기온 등에 의해 결정되며, 제주도 부근해역 연안수온 최저값은 제주시가 2월, 타 지역은 3월로 12~13℃를 보인다.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 기후특성집』, 제주지방기상청, 2013, 22쪽.

하고, 열나흘날에는 영등신을 떠나보내는 <영등송별제>를 한다.²⁹⁾ 영등할망이 떠나가면 움추렸던 바다의 겨울은 가고 새봄이 열리는 것이다. 그리 본다면 해상기상이 급변하여 조난사고 위험이 높고, 잡을 물건이 없는 영등달은 어부의 승선과 해녀의 물질을 금하면서 영등굿을 통해 새철을 준비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인들은 땅에서는 신구간(대한 후 5일 입춘 전 3일)에, 바다에서는 영등달(음력 2월)에 묵은철에서 새철로 넘어간다고 믿고 새철을 맞이할 채비를 하였던 것이다. 바람 다음으로 제주섬에 재해를 가져오는 것은 호우이다. 연강수량은 산간(4,000mm 내외), 남부(2,000mm 내외), 서부(1,200mm 미만) 등에서 지역편차가 대단히 심한 편이다.

한라산 산악효과로 편현상이 발생할 때에는 산남과 산북 사이에 기온과 강우량의 차이가 뚜렷해서 서로 다른 날씨를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호우는 한라산 산악효과로 풍상측에서 발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풍하측에서도 기류 수렴지역에 2차호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제주지역의 연강수일수는 120~140일 정도이고,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는 일반적으로 6월 중순에 시작하여 7월 중순경까지 약 한 달간 지속되는데, 여름작물 수확기에 장마가 질 경우엔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29) 예전에는 중산간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영등굿을 했다(영등할망은 바다 저쪽에서 건너오는 풍신이지만 이를 모시지 않으면 광풍이 일어 해상은 말할 것도 없고 논밭에도 피해가 미치므로 양산촌사람들도 이 제사를 지냈다. 泉靖一, 『濟州島』, 홍성목 역, 제주시우당도서관, 1999, 255쪽.)고 한다. 하순애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183쪽 재인용.



<그림1> 제주지역의 연강수량³⁰⁾

제주섬에서는 ‘장마’, ‘안개’ ‘축축한 물건에 돈을 킁킁른 곰팡이’를 ‘마’라고 하였다. 장마가 지거나 안개가 끼고 습한 날씨가 이어질 때 ‘마친다’ 하고, 장마가 시기가 지나 비 날씨가 걷히는 것을 ‘마갸다(마갸다)’고 하며, 오랜 장마가 걷혀 날씨가 맑은 날을 잡아 온 집안의 가재도구에 생긴 곰팡이를 별과 바람에 말려 털어내고 정리하는 것을 ‘마불린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마불린다’는 것은 장마철에 돌아났던 ‘마’ 즉 ‘곰팡이’를 바람에 날려 보낸다는 뜻이다. 제주무속에서는 음력 7월 14일 전후하여 당국의 이름으로 ‘마불림제’를 행하였다. 습기차서 곰팡이가 생긴 신의(神衣)들을 말리고, 마을 설촌 조상인 당신(堂神)에게 가을곡식의 풍등을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 백중(음력 7월 15일)은 24절기 가운데 처서(양력 8월 23일경)를 전후한 시기가 되는데 오행(五行)의 계절분류[春, 夏, 長夏, 秋, 冬]에 따르면 ‘장하’에 해당하며 모든

30) 심재면, 「기후변화의 개념, 원인과 영향」, 2014년 기후해설사 과정 강의자료, 2014. 6. 17.

곡식이 열매를 맺고 여물어가는 시기로 이때의 기상이 추수의 풍흉(豐凶)을 결정한다. 현용준에 따르면, ‘백중제’는 유식(儒式) 마을제의 백중코스과 같이 우마(牛馬)의 증식을 비는 제이다.³¹⁾ 이는 ‘백중제’ 역시 ‘마불림제’로 해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기적으로 한여름인 음력 칠월 보름(백중)에 행해지는 ‘마불림제’는 육지에서 ‘조상 영혼의 천도(薦度)와 일꾼들의 여름철 농촌축제’가 제주 기후환경에 맞게 변형되어 ‘말[馬]불림[増殖]’과 ‘매[곰팡이]불림[바람에 날려보냄]’이라는 뜻을 가진 제례로 된 것으로 보인다. ‘마불림제’는 일종의 동음이의어(homophone)인 셈이다.

한편 화산회토로 덮힌 제주섬의 토양은 보습력이 약해서 열흘만 비가 안 와도 가뭄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뭄 피해는 비 피해 못지않게 제주인들에게 혹독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처럼 기상에 의한 자연재해는 어느 한 개인이나 가정의 몫은 아니었다. 제주섬의 각 마을 본향당에서는 마을단위로 일 년에 네 차례 마을 굿을 행하였다.³²⁾ 즉 마을주민의 무사안녕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정초의 포제나 과세문안제, 이월의 영등굿, 칠월의 마불림제나 백중제, 시월의 시만곡대제 등 의례를 행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제주섬에서 세시의례가 더 철저히 지켰던 것은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바람 피해, 비 피해, 가뭄 피해 등이 더 심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온난다습한 기후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섬은 본토와는 다른 기후를 지닌다.

31) 현용준, 『제주도 마을신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27쪽.

32) 장주근, 「강인한 삶의 현장, 풍요로의 기원」 『제주도 영등굿』 (김수남 사진집), 열화당, 1992, 98쪽.

<표9> 24절기에 따른 제주 일평균기온표³³⁾

계절	24절기	양력 (+1)	제주기상청 (°C) [1931~2010]
봄	입 춘	2월 4일	5.0
	우 수	2월 19일	5.9
	경 칩	3월 5일	7.6
	춘 분	3월 20일	9.6
	청 명	4월 5일	12.0
	곡 우	4월 20일	14.0
여름	입 하	5월 5일	16.1
	소 만	5월 21일	17.6
	망 종	6월 6일	19.7
	하 지	6월 21일	21.2
	소 서	7월 7일	24.1
	대 서	7월 22일	26.7
가을	입 추	8월 7일	27.4
	처 서	8월 23일	25.9
	백 로	9월 8일	23.5
	추 분	9월 23일	21.3
	한 로	10월 8일	18.7
	상 강	10월 23일	16.2
겨울	입 동	11월 7일	14.0
	소 설	11월 22일	11.2
	대 설	12월 7일	8.7
	동 지	12월 21일	7.5
	소 한	1월 5일	5.6
	대 한	1월 20일	5.1

제주섬은 연중 온난다습하고 일교차가 본토에 비해 작으며, 최한

33) 기상청(<http://www.kma.go.kr>) 기후자료<국내기후자료<평년값자료(30년): 1961-1990, 1971-1990, 1981-2010> 및 중앙기상대, <한국기온자료: 1904-1960> 제1권, 1987 등 참조. 여기서 절기 온도는 입춘인 경우 2월 4일 또는 5일, 대한인 경우는 1월 20일 또는 21일이 되기 때문에 위 표에 날짜와 그 다음날의 기온을 평균하여 24절기의 일평균기온으로 삼았다. 여기서 기온은 제주지방기상청(제주시 건입동 소재)의 기온을 나타낸다.

월인 1월에는 서울보다 8~10℃ 따뜻하다. 그리고 통상적인 동절기에 해당하는 12월, 1월, 2월에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해안지대에는 일평균기온이 대부분 5℃를 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섬 해안지대에는 기상학적으로 겨울은 없고, 봄, 여름, 가을 세 계절만 있는 셈이다.³⁴⁾

제주섬 기후가 육지부와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은 조선시대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나 유배왔던 선비들의 기록에도 나타난다. 1601년 안무어사(安撫御使)로 파견되었던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은 『남사록(南槎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한 지역민(土人)에게 물으니 “봄과 여름 낮에 안개가 끼면 섬이 온통 시루 속에 있는 것과 같아 지척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마주보고 앉았어도 다만 말소리만 들릴 뿐 그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고 한다. 내가 (음력) 9월에 닷을 내리고 정월에 출항하였으니, 바로 이 가을 겨울이 하늘이 개는 때인데 그 사이 5개월 간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불과 수 십일이다. 이 밖에는 항상 흐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내렸고, 바람이 불지 않은 날이 없었다. 섬사람들은 몹시 가난하고 옷이 없는 자가 많다. 망석(網席)을 뚫어 만든 도롱이를 입고 겨울 추위를 막는다. 대개 그 땅이 북쪽 본토에 비해서 대단히 따뜻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죄를 짓고 들어가서 옷 없이 벌거벗은 자도 역시 풍속에 따라 추위를 견디는 것인데 이는 살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백성은 곱추병과 상처와 헌데가 온몸에 나 있는 자가 많은데 이는 반드시 풍토가 나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충암(沖庵) 김정(金淨, 1486~1521)의 『충암록(沖庵錄)』에 따르면, 이 읍의 풍토는 유별나고 모든 일이 다르다. 문득문득 감탄하고 놀라게 된다.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한데, 변화하거나 어긋나서 일정치가 않다. 기후는 따뜻한 것 같은데 옷 입은 사람은 매우 불편하다. 의식(衣食)을 절도있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병에 걸

34) 기상학적 계절 구분에서 겨울은 일평균기온 5℃ 이하(최저기온 0℃ 이하)를, 봄·가을은 일평균기온 5℃~20℃를, 여름은 일평균기온 20℃ 이상(최고기온 25℃ 이상)을 말한다. 국립기상연구소제주기상청, 『기후변화이해하기VI- 제주의 기후변화』, 2010, 52쪽 참조.

리기 쉽다. 더군다나 구름과 안개가 항상 음침하고 찌고 습하고 끓는 듯하고
울적하다. 땅에는 벌레들이 많은데 파리와 모기가 더욱 심하다. 지네와 개미
와 지렁이 등 모든 굼실거리는 것들이 모두 겨울나도 죽지 않으니 가장 견디
기 어려운 것이다.³⁵⁾

한편 대정에서 10여 년간(1614~1623) 유배 생활했던 동계(桐溪)
정온(鄭蘊, 1569~1641) 역시 「대정위리기(大靜圍籬記)」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 지역민(土人)에게 다음과 같이 들었다. “제주[瀛洲]는 둘러가며 전역이
바다 가운데 있는 어려운 섬이다. 그런데 이 (대정)현은 바닷가에 더욱 가까
워 지형이 낮아 풍토병의 독한 기운이 (제주)삼읍 중에서 가장 심하다. 봄 여
름이 바뀔 때부터 가을 8월초에 이르기까지 장마가 들면 계속 축축하여 개지
않아 눈병이 발생하고 때도 없이 지독한 안개가 침침하게 막아 지척을 가리
지 못한다. 사람과 물건들이 이때가 되면 기둥 서까래와 창벽에 물방울이 흐
르는 게 샘처럼 하여 옷과 갓이며 상과 돛자리가 번지르하게 습기가 젖서 땀
물과 같다. 이러므로 비록 옷, 재물, 곡물이 있다 해도 여름이 지나면 썩어버
려 끝내는 못쓰게 돼버리고 만다. 문지도리 석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지나면
모두 삭아 썩는다. 하물며 피와 살이 있는 신체에서야 … 우리야 여기서 성
장하여 습관과 성격이 이뤄지지만 내지(內地)의 조관(朝官)이야 어찌 견딜 곳
이겠는가.” 가을 기운이 끝나가고 북풍이 일어나려고 하면 장려(瘴癘)라는
풍토병이 조금 개고 양기(陽氣)가 드러나는데 정말 요즘과 같다. 그런데 겨울
에 간혹 춥지 않고 여름에 간혹 덥지를 않아 기후가 서로 어겨 추위와 더위
가 거꾸로 놓인다. 입는 것과 먹는 것이 조절하기 어려워 질병이 일어나기
쉽다. 그리고 뱀, 지네, 땅강아지, 지렁이 등 굼틀거리는 생물들이 모두 겨울
을 지나도 죽지를 않는다. 이는 풀과 나무, 무우, 부추, 마늘, 상치 등 모든
씨 뿌려 심는 종류는 비록 깊은 겨울에도 여러 나물을 밭에서 구해다 쓸 수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³⁶⁾

35) 김상헌(金尙憲) 저, 김희동 역, 『남사록(南槎錄)』, 영가문화사, 1992, 53-56쪽
참조.

36) 이증(李增) 저, 김익수 역, 『남사일록(南槎日錄)』, 1681, 제주문화원, 2001,
159-160쪽 참조.

그리고 조선 후기에 8년 3개월 (1840.9~1848.12) 제주섬에 유배되었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제주섬에서 많은 잔병치레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눈병[眼疾], 다릿병[脚疾]이 한결같은데다 소화불량증[阻胃]까지 더 하니 천백 가지가 맵고 쓰곤 하여 갈수록 견뎌낼 수 없다오” 37) “가래[痰] 기침[嗽]이 크게 더쳐서 그 기침이 급하여 기가 통하지 않을 때는 혈담까지 아올러 나오는데, 이는 모두 장습[瘴濕]이 빌미가 된 것이네. 게다가 수천도 좋지 않아서 답답한 기운이 뱃속에 가득 차서 풀리지 않고, 눈이 어른어른한 증세도 더하기만 하고 줄지 않네.” 38) “누인의 병은 그 사이에 또 담체[痰滯]가 더치어 수십일 동안을 크게 앓고도 소화불량으로 먹지를 못할뿐더러 신기가 전혀 수습되지 않으니 답답하외다.” 39) “나는 구창[과로 했을 때 입안이 헤어지고 혀바늘이 돌기도 하고 입술 주위에 물집이 잡히기도 하는 병)으로 오래 신고하니 민망하다 겨오 그런다.” 40) “나는 아직 흔 모양이오나 피풍(피부에 발진 없이 심한가려움증을 앓는 피부소양증)으로 소양이 지금까지 낫지 못하야 밤을 매양 새와 나오니, ...” 41)

물론 추사가 호소하는 이러한 질환들이 생사여탈을 결정하는 치명적인 병도 아니고, 이러한 질환들이 모두 제주섬의 기후환경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주섬의 풍토와 무관하다 보기도 어렵다.

지금도 육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제주섬에서 겨울에도 들판의 푸

37) 『완당선생전집』 권4, 양진건(2011), 『제주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푸른역사, 207쪽 재인용.

38) 『완당선생전집』 권2, 양진건(2011), 『제주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푸른역사, 208쪽 재인용.

39) 『완당선생전집』 권4, 양진건(2011), 『제주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푸른역사, 209쪽 재인용.

40) 김일근(1991), 『諺簡의 研究』, 건국대학교출판부, 양진건(2011), 『제주유배길에서 추사를 만나다』, 푸른역사, 208쪽 재인용.

41) 같은 곳.

른 채소와 상록 가로수를 보면서 이국적이라고 생각한다. 온난다습한 기후는 겨울에도 식물 성장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일 년 내내 늘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생물은 담수, 지하수, 해수, 바위, 대기권, 식물세포 표면과 속, 동물의 피부와 장관(腸管) 등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서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온난다습한 기후환경에서 사는 제주인들은 어디를 손대도 늘 감염성 질병에 시달렸다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미생물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감염성 질병을 신의 조화로 인한 동태[動土]로 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실 서양에서도 1861년 파스퇴르(L. Pasteur)가 미생물이 어떤 신비로운 힘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1876년 코흐(R. Koch)가 미생물(세균)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냄으로써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질병이 신의 천벌이라고 믿어왔던 속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제주인들은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재해와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제주의 기후환경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비해야 했다. 제주섬의 일별 기온분포를 보면 1971~2000년을 기준으로 2월 2일이 가장 낮은 4.3℃이고, 8월 1일이 가장 높은 27.6℃를 보이고 있다.⁴²⁾ 제주인들은 속담과 신화 등을 통해서 미생물 감염으로 인한 질병을 경계해야 했다. 제주에는 “오뉴월에는 아진 방석도 못 고쳐 안나(오뉴월에는 앉아 있던 방석에서도 자리를 옮기지 못한다).” 는 속담이 있다. 무더운 장마시기인 오뉴월에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높기 때문에) 앉아 있던 방석에서도 옮겨 앉지 말아야 할 정도로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고온다습한 시기에 물건을 옮기거나 이사하게 되면 반드시 뒤탈이 난다는 것을 경고하는 속담이다.

42)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 기후특성집』, 제주지방기상청, 2003, 78쪽.

모든 인체 병원균은 중온성(mesophile) 미생물에 속하며, 장티푸스균과 같은 병원균들은 체온과 유사한 $37\pm 1^{\circ}\text{C}$ 가 최적의 증식을 하고, 5°C 이하가 되면 거의 증식을 할 수 없게 된다. 제주보건환경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제주섬에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주요 미생물로는 Salmonella, Vibrio, Shigella, Yersinia, Staphylococcus, Escherichia 등의 세균 등이 있는데 그로 인한 질병과 말라리아는 일평균기온이 20°C 이상 되는 6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연중 온도가 가장 높은 시기에 세균이 활발히 증식하고 세균을 옮기는 기생충들이 더욱 창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주섬에서는 감염성 질병을 유발하는 다양한 바이러스도 발견되고 있다. 이를테면 바이러스성 설사를 유발하는 Rotavirus, Norovirus, Astrovirus, Adenovirus, Norwalk-like virus, 독감과 같은 급성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Influenza virus, Rhinovirus, Adenovirus, Enterovirus, Bocavirus, Coronavirus, 소아마비와 같은 무균성 수막염을 일으키는 Poliovirus, Echovirus, Coxsackievirus 등이다.⁴³⁾ 바이러스성 설사인 경우는 1월부터 4월에, 급성호흡기 질환을

43) 김언주 외,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의 역학적 특성」 《보건환경연구원보》 제10권(1999),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김언주 외, 「제주도내 설사환자의 바이러스성 및 세균성 원인체 감염실태에 대한 역학조사」 《보건환경연구원보》 제14권(2003),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김언주 외, 「제주도내 비브리오 패혈증 원인균 분포조사」 《보건환경연구원보》 제14권(2003),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김언주 외, 「제주도 세균성 설사질환의 역학적 특성」 《보건환경연구원보》 제12 (2002),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김언주 외,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주요 원인병원체의 역학적 특성」 《보건환경연구원보》 제21권(2010),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김언주 외, 「제주도 장내바이러스 유행양상 및 분자유전학적 특성」, 환경자원연구원보 제2권(2009),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임진숙 외, 「제주도내 급성설사질환 유발원인 세균의 분리현황 및 특성분석」, 환경자원연구원보 제2권(2009),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오경미 외, 「급성설사질환 유발원인 세균의 분리 및 특성」 《보건환경연구원보》 제22권(2011),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고신희 외,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설사유발 Norovirus 특성」 《보건환경연구원보》 제22권(2011),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유발하는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4월과 12월 등과 같은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질병들은 겨울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신구간⁴⁴⁾, 즉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는 제주섬의 기후적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기간이다. 제주섬에서 신구간은 가장 추운 기간으로 1년 중 일평균기온이 5℃ 미만으로 내려가는 거의 유일한 기간이다.

<표10> 신구간 제주 일평균기온⁴⁵⁾

신 구 간	제주(청) 일평균기온(℃)					평균
	1931-1960	1951-1980	1961-1990	1971-2000	1981-2010	
1월 25일 ~ 2월 2일	4.51	4.28	4.52	4.71	4.96	4.60

제주인들은 이 기간을 지상에 신이 없는 기간으로 삼아서 평소에

김언주 외, 「급성호흡기질환 원인바이러스 유행양상」 《보건환경연구원보》 제21권(2010),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고신표 외, 「제주지역 급성호흡기 질환 원인 바이러스 유행양상(2010~2011년)」 《보건환경연구원보》 제22권(2011),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고신표 외, 「제주지역에서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행양상(2010~2011년)」 《보건환경연구원보》 제22권(2011),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참조.

- 44) 세관교승(歲官交承)조에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에 신구세관이 교승하는 때(大寒後五日立春前二日 乃新舊歲官交令之際)”라고 하는 표현은 “대한 후 5일이면 지상의 신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없고, 입춘 전 2일이면 다시 신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인은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까지를 지상에 신이 없는 기간이라 생각하였다. 대한은 1월 20일(또는 21일)이고, 입춘은 2월 4일(또는 5일)이기 때문에 신구간은 1월 25일(또는 26일)에서 2월 1일(또는 2일) 사이가 된다.

- 45) 기상청(<http://www.kma.go.kr>) 국내기후자료<평년값자료(30년): 1961-1990, 1971-1990, 1981-2010> 및 중앙기상대, <한국기온자료: 1904~1960> 제1권, 1987 등 참조. 여기서 신구간 일평균기온값은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평균기온을 더하여 9로 나눈 값이다.

동티날까봐 두려워서 못했던 건물 증개축, 통시[화장실] 수리, 이사 등을 했다. 그들은 이 기간에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지상(地上)의 일을 관장하던 신[舊官]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새로 임명받은 신[新官]들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지상에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이 두려워서 못했던 일들을 해도 아무런 탈이 없다, 하지만 평소에 그러한 일들을 했다가는 동티[動土]가 나서, 그 집에는 큰 가환(家患)이 닥치고 액운(厄運)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믿었다.

제주도의 민간에서는 이어나 집수리 따위를 비롯한 손질은 언제나 이 ‘신구간’이라는 기간에만 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구간’은 대한(大寒) 후 5일에서 입춘(立春) 전 3일간으로, 이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가 된다. 이 신구간은 보통 신구세관(新舊歲官)이 교승(交承)하는 과도기기간을 뜻한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대체로 제반 신격(神格)이 천에 올라가서 지상에는 신령이 없는 것으로 관념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기에 이 기간에는 이어나 집수리를 비롯한 평소에 꺼려했던 일들을 손보아도 아무런 탈이 없어 무난하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평상시에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다가는 동티가 나서, 그 집에는 큰 가환(家患)이 닥치고 액운(厄運)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하니, 날이 갈수록 일상생활에서는 미신으로만 돌려버리던 이들까지도 이 속신(俗信)에만은 속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활 주거지를 중심으로 늘 우리의 생활과 관계있다고 믿는 신으로서 대개 본향(本鄉) 토주관(土主官) 한집을 비롯해서 성주신, 조왕신, 문전신, 토신, 신장, 마두직이, 올래마두, 정살직이, 칙간신, 나무벌목신, 석상신, 칠성신, 정주목신 따위로, 이들은 일체의 지상신으로서 심방(巫覡)들은 지신(地神)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아무튼 제주인들은 이 신구간이 아닌 다른 시기에 부엌, 문, 변소, 외양간, 집중창 등을 고치거나, 울타리 안에서 흙을 파고, 울담을 고치고, 나무를 자르는 따위의 일을 하면 동티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티로 인해 잘 아프게 되는 증상으로는 대개 다리, 눈, 머리, 목, 가슴 등이 아프거나, 전신불구 따위로 그 아픈 증상이 한결같지 않으며, 급한 동티가 생겼을 때는 심방을 청해다가 빌 사이도 없이 죽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한 주의를 하여 이어나 집수리 따위는 반드시 이 신구간에 하게 된다. 이것은 평상시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신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 매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신구간은 옥황상제의 임명을 받아 내려온 여러 신격(神格)들의 임기가 다 끝나게 되어 구관(舊官)은 옥황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다시 신관(新官)이 서로 부임해 내려오는 이른바 신관구관이 교대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지상의 모든 신들이 일 년 동안 인간 세계에 있었던 온갖 일들을 옥황상제님 앞으로 총결산을 함과 아울러 그 일의 성과에 따라 새로운 임지로 발령도 받게 된다. 제주도민은 여러 신들이 옥황상제에게로 오가고, 또 그 신들이 많은 일거리들을 처리하느라고 인간세계를 보살필 겨를이 없는 분명한 틈을 타서 신들의 눈을 피해 쓰러져 가는 가옥을 다시 고쳐 세우고 또한 새로운 살림살이를 꾸며온 것이다.⁴⁶⁾

신구간 풍속은 『천기대요(天機大要)』⁴⁷⁾와 『산림경제(山林經濟)』의 ‘세관교승(歲官交承)’조에서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은 곧 신구세관(新舊歲官)이 교승하는 때이다. 입춘일을 범하지 말고, 반드시 황도일(黃道日)과 흑도일(黑道日)을 가려서, 먼저 조상의 신주(神主)에게 길(吉)한 방향으로 피해서 나가도록 청해야 한다. 이때

46) 진성기, 『제주도민속』[9판], 제주민속연구소, 1997, 383-388쪽.

47) 『천기대요』는 역학(易學)과 오행설(五行說)에 바탕을 두서 상장(喪葬), 기조(起造), 혼인, 이사 등을 할 때 택일과 방위를 결정하는 법을 기술한 도참서(圖讖書)로 조선시대에는 조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천기대요』를 명(明)조의 임소주(林紹周)가 편찬한 것을 인조14년(1636)에 성여훈(成汝勳) 도입하여 간행하였고, 영조13년(1737)에 지백원(池百源)이 증보본을 만들고 영조39년(1763)에 지일빈(池日賓)이 신증본[新增參贊秘傳 天機大要]을 간행하였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천기대요[增補參贊秘傳 天機大要]』가 원말명초(元末明初)의 역리학자 동덕창(董德彰)이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http://www.ncc.com.tw/books/goods.php?id=6423> 참조) 한편, 명(明)의 임소주(林紹周)는 역학(易學)과 오행설(五行說)에 바탕을 둔 『신간이리상변찬요삼태편람통서정중(新刊理氣詳辯纂要三台便覽通書正宗)』이라는 도참서를 편찬하였고, 이를 만력(萬曆)무술(戊戌)년(1598)에 임유송(林維松)이 중편(重編)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세관교승(歲官交承)’ 내용이 없다.

[https://archive.org/search.php?query=creator%3A%22\(%E6%98%8E\)%E6%9E%97%E7%B4%B9%E5%91%A8%E8%BC%AF%22](https://archive.org/search.php?query=creator%3A%22(%E6%98%8E)%E6%9E%97%E7%B4%B9%E5%91%A8%E8%BC%AF%22) 참조.

에는 산운(山運)에도 거리낌이 없어 모든 흥살이 극복되므로, 임의로 가택을 짓고 장사를 지내도 불리함이 없다” 48)는 데서 기인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 두 책이 전국적으로 널리 읽혔는데도 육지에 신구간이 없는 이유는 이 시기가 전국적으로 가장 추운 한겨울이기 때문이다. 온난한 제주섬에서는 가장 추운 이 기간을 묶은 철을 정리하고 새 철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지만, 육지에서는 너무 추운 시기여서 이사를 하거나 집을 수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기후환경적으로 볼 때 제주섬에서는 ‘세관교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신구간 풍속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

<표11> 신구간 전후 절기 지역별 일평균기온(1971-2000, °C)

절 기 \ 지 역	서울	광주	완도	부산	제주
소 한 (1/5,6)	-2.4	0.8	3.5	3.3	6.3
대 한 (1/20,21)	-3.2	-0.2	1.9	2.4	5.1
신구간 (1/25~2/2)	-3.2	-0.3	2.0	2.3	4.7
입 춘 (2/4,5)	-1.6	0.7	2.7	3.5	5.3
우 수 (2/19,20)	0.7	2.7	4.4	5.2	6.3
경 칩 (3/5,6)	3.1	4.8	7.2	6.3	8.2
춘 분 (3/20,21)	6.8	7.8	9.0	8.4	9.8

48) 大寒後五日 立春前二日 乃新舊歲官交令之際 不犯立春日 須擇黃黑道 先請祖先神主出避吉方 不忌山運 被克及諸般凶殺 起造葬埋 任意爲之 無不利 [原本影印版『新增參贊秘傳 天機大要』, 1981: 131-132쪽], 歲官交承(不犯立春日 須擇黃黑道) 大寒後五日 立春前二日 乃新舊歲官交令之際 其間善擇日時 不忌山運 被克及諸般凶殺 起造葬埋 任意爲之 無不利 [국역 『산림경제 I』: 11-12쪽, 국역 『산림경제II』: 199-203쪽]

이처럼 신구간 풍속이 제주도에만 (남아) 있었던 데는 단순히 미신으로 돌려버릴 수는 없는 기후환경적 요인들이 있다. 신구간 풍속이 제주섬에만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제주인들의 전통적인 무속적 성향, 그로부터 한시적으로나마 일탈을 가능하게 해준 <세관교송>의 유입, 기후환경적으로 실증적인 효과 등이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무속신앙이 제주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제주섬은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 비가 많고, 화산회토로 이뤄져서 조금만 가물어도 가뭄을 겪고, 태풍의 길목이어서 바람 피해가 심했고, 고온 다습한 기후는 1년 내내 세균의 번식이 가능해서 제주인은 늘 질병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했다. 자연재해와 질병 등을 인간의 의지로써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했던 옛 제주인이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 비해 무속적 성향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본토와 멀리 떨어진 제주섬은 무속문화를 흡수하고 분화해서 보존해온 우리나라 무속문화의 종착적인 집결처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무속신화가 가장 풍부하고 무속의례의 원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IV. 맺는 말

과학은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기술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지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과학기술시대에도 신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신화를 통해 여러 가지 현실적, 이론적 제약을 넘어서 맘껏 상상의 나래를 펴므로써 과학적 합리성에 대한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에 대해서 일상언어로 설명하며, 의학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에 대해서도 신화적 방법으로 치유하려 한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이 남아있는 사회일수록 신화의 힘은 더 강하게 작용한다. 전근대사회에서는 자연물이나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사까지도 신령스런 존재가 좌지우지한다고 보았다. 하늘, 땅, 바다, 인간 등도 신이 만들었고, 동식물이나 바위나 동굴 등에도 신령이 깃들어 있으며, 비, 바람, 가뭄, 지진, 화산, 해일 등의 자연현상과 삶, 질병, 죽음까지도 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애니미즘, 샤마니즘, 무속 등은 특정 지역의 고유한 문화라기보다는 인류문화 차원에서 볼 때 보편적인 것이다.

제주섬 민간신앙 가운데는 유교, 불교, 도교 등 외래종교에서 유래된 것도 있고, 무속에서 유래된 것도 있다. 그 가운데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육지에서 사라졌거나 다르게 변형된 것들도 있다. 이는 제주인들이 외래문화를 흡수하면서 제주섬의 자연환경에 맞게 변형시켰거나 외부와의 접촉이 드물어서 한번 형성된 문화는 오랫동안 유지되어 그 원형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특히 영등굿, 마불림제, 신구간 풍속 등은 제주섬의 기후환경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세시의례라 할 수 있다.

제주섬의 민간신앙이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자연환경이 열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온대와 아열대의 전이지대에 위치한 화산섬에 사는 제주인은 여름철 태풍과 겨울철 북서풍을 견디면서 비바람과 가뭄을 안고 살아야 했다. 한라산은 연강수량이 4000밀리미터가 될 정도로 다습하여 다양한 토양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제주섬 못생명들을

키우는 자궁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한라산은 제주인에게 단순한 물리적 존재를 넘어서 어머니 같은 존재였고 할로산신(한라산신)이 거주하는 정신적 본향이 되었다.

사람이 주로 거주하는 해안지대에는 겨울이 없을 정도로 따뜻하기에 병원미생물들이 번식할 기회도 그만큼 많았다. 특히 미생물 번식이 무성한 돛통시는 생활폐기물들을 돛거름을 전환하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병원성 세균들의 들끓는 장소였다. 제주인들은 문전본풀이에서 남선비의 본부인인 여산부인이 조왕(부엌)신이 되고 첩인 노일저대귀의 딸이 측간(변소)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세균이 많이 번식하는 변소와 그로 인한 감염 우려가 높은 부엌은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에 먹이사슬과 먹이그물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뱀들은 곡식을 해치는 벌레들과 어렵게 수확한 곡식을 축내는 쥐를 잡아먹음으로써 식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였다. 제주섬에서 뱀신앙이 유독 강하고, 뱀이 가정의 부(富)를 지켜주는 안칠성과 밋칠성, 그리고 여드랫당신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제주의 기후환경 탓이 컸다고 본다.

근대화를 추구하던 행정관료들은 제주의 전통문화를 미신으로 폄훼하면서 무속과 신구간 등을 대표적 악습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폐지운동을 펼쳤다. 하지만 그것들이 근대적 합리성에 비춰본다면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그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신구간에는 지상을 관장하는 신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신이 두려워서 못 하던 일들을 하더라도 별 탈이 없다는 속신은 일평균기온이 5℃ 미만으로 내려가는 신구간에는 중온성 세균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기에 평소에는 세균감염 우려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해도 괜찮다는 합리적 근거와도 부합되는 것이다. 제주인들은 신들의 내력담인 본풀이

에 근거하여 금기(taboo)를 통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질병에 대해서 경계하고, 세시의례를 통해 정기적으로 조신하면서 예방하려 하였고, 그래도 닥쳐온 재해와 질병들에 대해서는 무속의례를 통해 치유하려 하였다.

기상학적으로 묶은 철과 새 철이 바뀌는 시기에는 땅에서는 친구 간을 마치고 입춘굿을 하였고, 바다에서는 영등달에 영등굿을 하면서 새 철을 준비하였다. 따라서 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시기에 출어를 금하고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영등굿을 올리고, 백중(음력 7월 15일)에 지리한 장마에 곰팡이가 핀 옷가지와 물건들을 꺼내어 뜨거운 햇볕에 말리는 ‘마불림제’와 잘 여물어가던 곡식들이 8, 9월 태풍으로 한 순간에 흉작이 될 수도 있기에 풍농을 기원하는 ‘백중제’ 역시 제주 기후환경과 관련이 있다. 제주섬은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 풍해(風害), 수해(水害), 한해(旱害)가 잦고, 가장 따뜻하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고 방역이 미비하던 시절 제주인들은 자연스레 삼라만상을 경외(敬畏)의 대상으로 여겼다. 오늘날 까지도 제주섬에 많은 신당이 남아 있고, 친구간 풍속이 지켜지는 등 육지부에 비해 제주섬에 민간신앙이 강하고 오래 지속된 것은 그만큼 제주섬이 열악한 자연환경이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자연재해가 심한 지역일수록, 온난다습해서 미생물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 많은 지역일수록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에 토대를 둔 민간신앙이 강할 수밖에 없다. 제주인들 못지않게 일본인들도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두 신(神, かみ)으로 떠받든다. 그들은 모든 곳 모든 대상에 영혼이 있어서 그곳 또는 그것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창조신과 조상들뿐만 아니라, 식물·바위·동물·물고기·새 등의 생물과 무생물들도 모두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 일본에서는 수많은 신을 일컬을 때 보통 “八百

万(やおよろず)の神(かみ)”라 한다. 그들이 800만신과 11만 신사(神祠)를 만들어 추앙하는 것은 그만큼 지진, 화산, 태풍, 해일 등 인간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심하고, 아열대에서 아한대에 이르는 폭넓은 기후대에서 살아가는 자연환경의 탓이 크기 때문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기후환경이 제주 민간신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보다 설득력을 얻으려면 제주섬 자연재해와 민간신앙의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무속의례로 치유하는 질병들에 대한 의학적 차원의 재해석, 자연재해가 많은 다른 지역의 민간신앙과 비교분석 등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고신호 외, 「제주지역 급성호흡기 질환 원인 바이러스 유행양상(2010~2011년)」 《보건환경연구원보》 제22권,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2011.
- 고신호 외,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설사유발 Norovirus특성」, 앞의 보고서.
- 고신호 외, 「제주지역에서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행양상(2010~2011년)」, 앞의 보고서.
- 고영자, 「민간신앙」 『제주생활문화사』, 제주문화원, 2014 출간예정.
- 고찬화 편저, 『제주의 전설과 민요』, 디딤돌, 2004.
- 김상봉, 「제주도 연안해역의 폭풍해일고 산정」,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상헌, 『南槎錄』, 김희동 역, 영가문화사, 1992.
- 김수남·장주근 외 『제주도 영등굿』, 열화당, 1992.
- 김언주 외, 「급성호흡기질환 원인바이러스 유행양상」 《보건환경연구원보》 제21권,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2010.
- 김언주 외,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주요 원인병원체의 역학적 특성」, 앞의 보고서.
- 김언주 외,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의 역학적 특성」 《보건환경연구원보》 제10권,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1999.
- 김언주 외, 「제주도 세균성 설사질환의 역학적 특성」 《보건환경연구원보》 제12권,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2002.
- 김언주 외, 「제주도 장내바이러스 유행양상 및 분자유전학적 특성」 《환경자원연구원보》 제2권,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2009.
- 김언주 외, 「제주도내 비브리오 패혈증 원인균 분포조사」 《보건환경연구원보》 제14권,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2003.
- 김언주 외, 「제주도내 설사환자의 바이러스성 및 세균성 원인체 감염상태에 대한 역학조사」, 앞의 보고서.
- 김영권 외, 『병원미생물학』, 수문사, 2008.
- 김오진,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상재해와 관민의 대응양상」 『제주지리론』, 한국학술정보, 2010.
- 김응빈 외 옮김, 『토토라미생물학』, 바이오사이언스출판, 2014.
- 김종배 외, 『병원미생물학』, 라이프사이언스, 2012.

- 김혁제 교주, 『改正增補 天機大要』 卷之下, 명문당, 2000.
- 대한역법연구소 편, 原本 影印版『新增參贊秘傳 天機大要』, 대지문화사, 1981.
- 문무병, 「제주도 도깨비당 연구」 『탐라문화』 제10호, 1990.
-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 심재면, 「기후변화의 개념, 원인과 영향」, 2014년 기후해설사 과정, 2014. 6. 17.
- 오경미 외, 「급성설사질환 유발원인 세균의 분리 및 특성」 《보건환경연구원보》 제22권,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2011.
- 오상진, 『일반미생물학』,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 윤용택, 「제주 생활문화 의식과 정체성」 『제주생활문화100년』, 제주문화원, 2014.
- 윤용택, 『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 이 중, 『南槎日錄』,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01.
- 이기욱, 「환경과 제주문화」 『탐라문화』 제1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 이은주, 「제주도 무의에 나타난 질병개념」 『논문집』 제13집, 제주간호보건전문대학, 1989.
- 임동권, 『한국세시풍속연구』, 집문당, 1989.
- 임진숙 외, 「제주도내 급성설사질환 유발원인 세균의 분리현황 및 특성분석」, 환경자원연구원보 제2권, 제주특별자치도환경자원연구원, 2009.
- 장정룡, 『한중 세시풍속 및 가요연구』, 집문당, 1988.
- 장주근, 「제주도 무속문화의 지역성에 대하여」 『제주도』14호, 제주도, 1963.
- 제주기상대, 『제주기후요람(1961-1990)』, 제주기상대, 1993.
- 제주도, 『제주도지』하, 제주도, 1982.
-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제주신당조사』(제주시권, 서귀포시권), 제주도전통문화연구소 편, 2008~2009.
- 제주지방기상청, 『기후변화이해하기VI- 제주의 기후변화』, 국립기상연구소·제주지방기상청, 2010.
-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 기후특성집』, 제주지방기상청, 2003.

- 조성운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 중앙기상대, 『한국기후편람』, 중앙기상대, 1985.
- 진성기, 「新舊間과 民俗信仰」, 『국어국문학』 3435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7.
- 진성기, 『복을 비는 사람들』, 디딤돌, 2008.
- 진성기, 『제주도 금기어 연구사전』, 제주민속연구소, 1992.
- 진성기, 『제주도민속』, 제주민속연구소, 1997.
- 泉靖一, 『濟州島』, 홍성목 역, 제주시우당도서관, 1999.
- 하순애 외, 『제주지역 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2003.
- 한국천문대 편, 『만세력』, 명문당, 2004.
- 현용준 외,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 현용준, 「濟州島 巫俗의 疾病觀」 『제주도』 제21호, 제주도, 1965.
- 현용준, 「濟州島 巫神性格과 神統」 『제주도』 16호, 제주도, 1963.
- 현용준, 「濟州島 巫神의 形成」 『탐라문화』 창간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2.
- 현용준, 『제주도 마을신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13.
-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홍만선 저,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산림경제』 I, II,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
- 홍석모, 『동국세시기』 - 강무학, 『한국세시풍속기』, 집문당, 1990.

온라인정보

- 기상청(<http://www.kma.go.kr>) 국내기후자료<평년값자료(30년):1961-1990,1971-1990, 1981-2010>
- 董德彰, 『增補參贊秘傳 天機大要』
- <http://www.ncc.com.tw/books/goods.php?id=6423>
- 林紹周, 『新刊理氣詳辯纂要三台便覽通書正宗』
- [https://archive.org/search.php?query=creator%3A%22\(%E6%98%8E\)%E6%9E%97%E7%B4%B9%E5%91%A8%E8%BC%AF%22](https://archive.org/search.php?query=creator%3A%22(%E6%98%8E)%E6%9E%97%E7%B4%B9%E5%91%A8%E8%BC%AF%22)

Astract

A Study on Jeju Folk Beliefs in the Climatic Environmental Aspect

Yoon, Yong-Taek *

Jeju Island is a volcanic island in the temperate and subtropical transition zone. Jeju Island has a strong wind blowing, the rain often, severe drought. Therefore it was often called the three disasters island. Jeju people live mainly in the coastal zone microbes can breed throughout one year, and held a risk of disease. Old Jeju people believed that gods or spirits cause illness and death, and bring health and prosperity. They are blessed and expel calamity through shaman rituals. In 1960s, there were 400 shamans and 500 pieces myth in Jeju Island. According to a recent shaman shrine survey, the Jeju Island has found that 350 sites are maintained properly. From these facts, we know that Jeju Island has shamanism remains relatively strong even today. Jeju people were warning about the natural disasters and diseases through the taboo on the basis of Ponpuri(the epic of the gods), were trying to prevent them through the seasonal rituals, and were trying to heal for the disaster and disease through shamanic rituals. Folk beliefs in Jeju Island lasted for a long time stronger than other regions in Korea. It shows that the natural environment of Jeju island was poor.

**Keywords : Jeju Island, Fork Beliefs, Climatic Environment,
Natural Disasters and diseases, Shmanism**

*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Jeju National University

기후 환경적 측면에서 본 제주 민간신앙

교신 : 윤용택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철학과 (E-Mail: sunsaram@jejunu.ac.kr)

논문투고일 : 2015. 7. 3.

수정완료일 : 2015. 8. 3.

게재확정일 : 2015. 8. 7.